



교회 닮으려 하지 말라

한국종교학회서 종교학자들 지적

한국종교학회(회장 류성민)가 12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종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윤이흠 서울대 명예교수, 김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강동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박희택 불교아카데미 원장 등이 참석해 다종교 상황과 종교간 커뮤니케이션, 종교간 갈등 극복 및 공존을 주제로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가운데에는 종교 본연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가하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도 있었다. 발표자들은 자신이 속한 종교의 치부도 거침없이 밝히고, 소통과 화합을 외쳤지만 원점에서 맴돌았다.

윤이흠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 '한국다종교 상황의 혼돈과 갈등'에서 종교 간 갈등의 원인을 현대사회 체제의 '무분별한 팽창주의'에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현대종교는 특정종교 교단 안의 문제, 종교사이의 마찰을 계속 질서를 바로잡는 사회의 범질서에 의존한다. 세속의 질서를 깊이 수용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세속화된 종교를 비판했다.

특히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장은 제2섹션 '종교간 갈등 극복 및 공존을 향하는 길' 총평에서 "한국교도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 대형화 조직화 권력화된 대형교회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불교가 개신교를 쫓아 대형사찰을 만들어 조직화된 멤버십 종교를 추구한다면 개신교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윤승용 소장은 "종교간 갈등보다도 정부의 종교정책과 그 집행과정에서 종교편향이 문제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집행에 의한 종교편

향을 막기 위해 윤 소장은 정부 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측정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윤승용 소장은 "설문조사도 각 교단 중심 통계에 그쳐 교단간 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가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불교계가 더 자성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희택 불교아카데미 원장은 주제발표 '현대 한국사회의 종교적 갈등의 구조와 해법'에서 "종교적 갈등 해소를 위해 불교계는 자기혁신의 정진을 가속화하고 피해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장은 "불교계가 잘못 처신하면 단순히 나이만 많다고 해서 장로로 대접해 달라는 투정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조계사에 성탄트리 점등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20일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 일주문 앞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봉행했다. 자승 스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불자들은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축하한다. 예수의 삶을 본받아 남북의 불안,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상심, 평화와 관용을 위협하는 아집과 독선을 이겨내야 한다"고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7대종교 '증오범죄법' 입법 촉구

동성에 차별 금지법 등은 반대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7대 종교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종교 차별 금지법을 위한 증오(혐오) 범죄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의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12월 9~16일 '대한민국 종교지도자 이웃종교체형 성지순례'에서 로마교황청 등을 방문한 뒤 귀국해 2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7대 종교 대표자들은 성명서에서 "다문화·다민족·다종교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종, 문화, 종교 그 밖에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증오(혐오)범죄법 등 입법 조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7대 종교 대표자들은 '동성애차별금지법'과 같이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을 무너뜨리는 입법을 반대했다.

조동섭 기자

선사와 신학자 머리 맞댄다

대구 동화사 등서 대담·법문·특강

개신교의 불교편향과 정부의 종교편향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때, 선사와 신학자가 만나 종교간 대화를 논의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31일 대구 동화사를 시작으로 1월 5일까지 부산 해운정사,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2011 초조대장경 천년 밀레니엄 릴레이토크'를 개최한다.

'가슴을 열어 빛을 보라'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12월 31일 한국 불교 선지식인 진제 스님(대구 동화사 조실)과 세계적인 신학자 폴 니터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수가 만나 불교-기독교간 수행 전통과 대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구 사회의 화해작 <부처님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Without Buddha I Could Not Be A Christian)>의 저자인 니터 교수는 동화사 금당선원과 부산 해운정사에서 정진 중인 수좌스님과 재가 불자들도 만날 예정이다.

신년 1월 1일 오전11시에는 동화사에서 진제 스님의 신년 법어와 폴 니터 교수 초청강연이 진행된다.

2-4일은 부산 해운정사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2일 오후 2시 해운정사에서 폴 니터 교수는 해운정사 대종들과 평화발원 자비명상 법회에 참석한다. 4일 오전 11시에는 진제 스님과 폴니터 교수가 각각 법문·강연한다. 이 자리에서 니터 교수는 행사기간 체험한 간화선 수행 체험담을 소개할 예정이다.

5일 저녁 7시 30분에는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불교계와 기독교에 대표하는 학자 및 종교지도자들이 만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평화 담론을 연다.

행사에는 국제선센터 선원장 효담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김희성 서강대 명예교수가 불교계 대표로 참석한 다. 기독교계에서는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 이정배 기독교수협회의 회장, 정현경 뉴욕 유니언 신학교 교수가 참석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사회통합과 평화를 이루는다는 불교계의 간절한 사회통합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종교간 선의 경쟁해야"

자승 스님·NCKK 회장에 당부

"개신교의 과격한 불교 편향 일부 아니다. 조직적이고 심각하다. 종교평화는 몇몇 지도자들의 목소리만 (일반 신도현장에서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20일 취임인사차 예방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신임총무 김영주 목사를 앞에 두고 개신교의 종교편향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남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김영주 목사는 "최근 벌어진 불교와 개신교간 갈등은 당황스럽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역별 종단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논의한다면 무난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시각이 많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스님은 "피부로 느끼는 사안은 심각하다. 일부 과격단체나 사람들에게 의한 것이 아니다. 조직적으로 그 정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개신교의 선교과정에는 불교를 미신으로 폄하하는 등의 일들은 조직

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유포된 (땅 밟기 등 불교편향) 동영상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도 증오(혐오)범죄법 등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종단이 정면 대응한 적 없었고 과격하게 반응한 적 없지만 상황이 심각할 뿐 아니라, 교계에서도 종교편향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어 "종단간 교리와 믿음이 달라 화합은 불가능하지만, 선의의 경쟁으로 상생은 가능하다"고 말해 각각의 공동선을 추구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활동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자승 스님의 발언에 김영주 목사는 "지도자의 생각이 그 정도라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불교계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종교간 대화가 가능한 일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언 기자

정찬주의 행복한 禪·다행 ⑧

석상사1

선(禪)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 중에는 일제 선사의 '부처도 죽고 조사도 죽여라[殺佛殺祖]'일 것이다. 본래의 자기 자신을 매순간 온전하게 드러내면 되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인 부처와 조사의 가르침에 감하지 말라는 뜻이다. 벽안의 수행자 현각 스님도 "선불교는 재즈다. 선승의 생활은 재즈와 같다. 많은 종교들이 형식과 틀, 어떤 틀을 강조하는데 선불교는 다르다. 재즈처럼 자유롭게 즉흥적인 연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선승의 길을 자유롭게 가는 자신은 행복하다고 말한다.

알다시피 재즈는 사랑과 자유를 노래하는 데 원초

선(禪)은 재즈와 같다

적이고 즉흥적이고 참나적인 감성을 중시하는 미국의 대중음악 장르 중 하나이다. 온몸으로 살고 온몸으로 죽는 활발발한 선기(禪機)와 흡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선의 역동성이다. 선이 선방에 갇혀 관념화되어 간다면 그 선은 결국 생명력을 잃고 말 터. 선은 선방의 좌복을 떠난 자리에서 더 빛을 발할지도 모른다. 선방의 울타리를 벗어나 훌가분한 만행과 먼 길의 순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도(道)가 어디에 있냐고 묻자, 부처님은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다고 말했다. 순례 중인 나는 순간순간 내 발자국이 찍히는 자리라고 말하고 싶다. 석상사(石霜寺)로 가는 길에 만난 모든 인연이 나의 선지식이듯 합장하며 순례하고 싶다.

▶19면에 계속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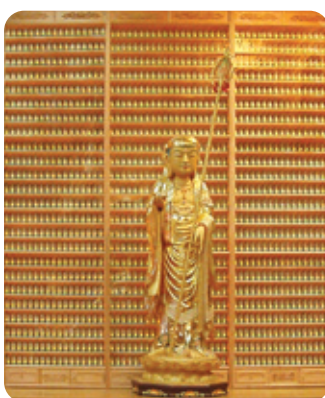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중등

- 내열 ABS
내열특성: 연화점온도가 100~120℃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시간

-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 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 전기요금이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